

5과) 자연과의 공존, 평화를 부릅니다

- 공존의 시작, 남북 접경지역과 기후협력

1. 마음열기 -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영상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찬양 영상을 차분한 마음으로 감상한 후 편안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이 처음 세상 밝힐 때 우리에게 건네신 선물을 고요히 헤아려봅니다. 헤아림이 어느 정도 끝나면, 한 사람이 다음 동작으로 마음을 열게 합니다.

“가슴 위에 내 것 아닌 것을 탐하는 마음 하나 떠올려봅니다. 그 감정이 심장에서 나와서 내 팔을 타고 손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을 각지 끼고 앞으로 밀다가 세차게 풀어버리면서 그 마음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다시 각지를 끼고 팔을 앞으로 쪽 밀어봅니다. 여덟을 셀 때까지 천천히 숨을 크게 들이쉬어 봅니다. 더 이상의 내 필요를 넘어 탐하는 마음이 자리하지 않도록 새 숨을 심장까지 채워봅니다. 여덟을 셀 때까지 천천히 들이쉬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 여덟! 여러분의 심장이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이 채워졌습니다. 천천히 눈을 떠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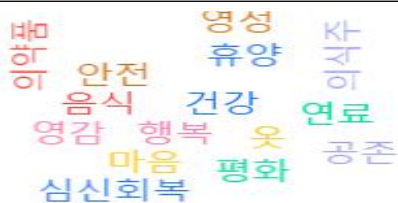
주변(창밖)에 있는 자연을 바라볼까요? 우리와 늘 함께 하는 자연은 어딜 봐도 그 자체로 좋은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기후 위기와 종의 멸종 때문인데,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가 중요합니다. 10년 후도 많은 이들이 이 귀한 선물을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은 선물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잠시 내 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빌1:8)이 건네 오는 말을 들어봅시다. 어떤 생각과 느낌,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앞으로 '9년 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누리려면?'이란 제목으로, 둘씩 번개 토론을 한 번 해볼까요?(한 사람이 1분씩)

2. 생각 쌓기 - 평화가 머무는 곳, 접경지역

현재 우리나라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국가생물종목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분류군별 생물종목록집도 발간되어 있는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및 지속가능발전을 살피기에 가장 좋은 공간은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중요 기능 중 하나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인데, 좌측에 있는 단어들을 연결하여 그 의미를 풀이해 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한다는 것은,
_____이다.

우리나라는 언제 어떤 곳들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을까요? 1982년 설악산이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로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 숲, 고창, 순천에 이어, 2019년 강원 생태평화 그리고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까지 차근차근 그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강원 생태평화'와 '연천 임진강'은 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이라는 비전을 품은 터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 즉 자연보전은 물론 자연의 평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접경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의 경우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신청한 곳을 지정하기에,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 간 협력과 평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전 세계적으로 129개국 714곳입니다(2020년 말 기준).

이들 지역을 인간과 자연의 관점에서 새로이 바라보며 자신만의 개념으로 정리해봅시다.

인간에게 '생물권 보전지역'이란 _____ 이다.
 왜냐하면, _____ 이기 때문이다.
 자연에게 '생물권 보전지역'이란 _____ 이다.
 왜냐하면, _____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인 비무장지대(DMZ)는 전쟁의 흔적이 여전한합니다. 대인지뢰를 밟아 발목을 절뚝거리는 동물들은 물론, 전쟁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만이 아니라 1만여 명의 미수습된 참전 군인들의 슬픈 유해도 품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는 사람의 손길이 별로 닿지 않아 수많은 동식물이 자유롭게 살아올 수 있습니다.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반도의 허리 휴전선으로부터 남과 북으로 각각 2km씩 어느 쪽도 군사시설 및 병력을 배치하지 않은 덕분입니다. DMZ는 남북 갈등의 상황 중에도 최상의 생태계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잘 그리고 있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기이한 DMZ 생태공원(강현아 지음, 소동)'입니다. 아직은 갈 수 없는 곳이니 그림책으로 살짝 들여다볼까요? 다음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책에 관한 이야기와 책 속에 등장하는 생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이한DMZ생태공원 북 트레일러' 휴전선 등털 산양 탄피물고기 지리탐지 고사리 뉘두리 할미꽃

어떤가요? 가보지 못한 곳, 아직은 갈 수 없는 곳 DMZ에 있을 생물들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는지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상상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만약 그들 생명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만남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물, 어떤 약속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잠깐 묵상)

남북 간의 긴장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가 DMZ에 찾아드는 날은 올 것입니다. 언제쯤 올까요? 남북 간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고, 남과 북에 평화가 찾아드는 날, 생명과 평화의 동산 DMZ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날지 참 궁금합니다. 흑여 개발의 바람이 불어서 동식물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를 오히려 깨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

금 잠시 침묵으로 기도해봅시다(3분 침묵기도).

3. 말씀 속으로 :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는 길

"그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젓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젓 떼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새번역, 사 11:6~9)

위 본문을 들으면, 어떤 단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본문이 나를 향해 걸어오는 말에 잠시 귀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마음으로, 가장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봅시다. 우리가 이를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 판단은 뒤로 하고, 충분히 상상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A4용지에 그림으로 표현해봅시다. 다 그린 것은 앉아있는 자리의 중심, 원 안에 가져다 놓습니다. 다 모이면, 모두 일어나서 중심에 놓인 그림을 감상하고 돌아와 아래 질문을 가지고 '지구돌봄서클¹⁾'로 함께 나눕니다.

내가 상상하는,
가장 평화로운
세상 그리기

지구돌봄서클을 위해 먼저 진행자와 기록자, 시간지킴이(타임키퍼)를 정합니다. 진행자는 다음 질문을 읽어주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2~3분 정도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게 합니다. 이야기 하는 사람은 다음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 약간의 침묵이 흐르도록 합니다. 토킹스틱(Talking Stick)을 정해두고,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면 온전한 경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온라인에서 순서를 정해놓거나 서로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

<서클 질문>

1. '주의 거룩한 산,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는 그때'를 어떻게 상상하셨을까요? 이를 수 있는 날로 희망하고 있는지, 상상한 그 날의 모습과 더불어 한두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2. 남한과 북한이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었던 순간을 떠올려봅시다. 그렇지 않았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3. 인간이 자연과 평화로운 공존, 곧 평화를 깨는 인간의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고, 그 근거가 될 만한 성경말씀을 찾아봅시다.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으로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휴전선으로 완전 분리된 채 살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자연을 봐도 다른 공간이지만 같은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이지만, 같은 식물들이 다른 이름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2018년 북한 지역의 식물 3,523종이 담긴 '조선식물지'와 우리나라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국가생물종목록을 비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50%인 1,773종의 식물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1) '지구돌봄서클' 진행과 관련해서는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http://blog.daum.net/ecochrist>)을 통해 진행도 등 관련 영상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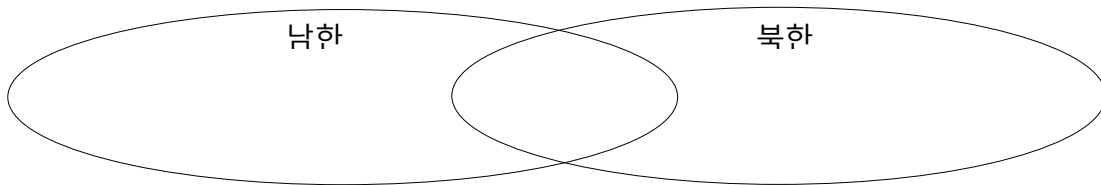
작약을 함박꽃으로, 라일락은 큰꽃정향나무로, 쥐똥나무는 검정알나무로, 리기다소나무는 세 잎소나무로, 양버즘나무는 방울나무로 부르고 있습니다²⁾. 남북으로 갈라진 땅에서 다른 이름으로 자라는 이들 식물을 보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휴전 중임에도, 자연은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스스로 그저 그렇게 존재할 뿐,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아서일까요, 자신의 율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율음도 존중하고 지켜주는 공존, 지극히 작은 생명까지도 배려한다면, 우리도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 삶 속으로 : 일상에서 자연과 평화에 이르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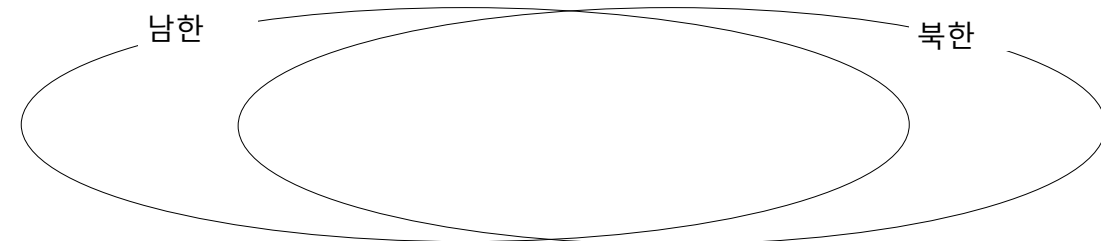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겔 37:16~17)

겔 37장 16~17절의 말씀을 몇 차례 반복해서 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는 70여 년을 남과 북으로 갈라져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고, 남과 북을 어떤 것으로 연결할지 생각해봅니다. 어떤 것이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 특히 지금은 전 세계가 기후 재난으로 심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이 북쪽에 덮치면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될 수도 있습니다. 남북한에 닥칠 기후 재난은 어떻게 닦쳐올까요? 남북한에 예상되는 피해를 예상해보고 그 차이를 생각해봅시다. 혹 남북한이 직면하게 될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따로 또 같이 해결해갈 일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남북한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잘 활용하여 협력함으로써 이 위기를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도 생각해보고, 서로 나누어봅시다.

기후 재난이 왔을 때, 남북한이 따로 또 같이 겪게 될 피해를 적어본 후, 어디서 오는 차이인지 이야기 해봅시다.



기후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를 이루기 위해, 남북한이 기후협력사업을 전개한다면, 서로 어떤 장점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2) 더 자세한 사항은 <http://www.econ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에서 확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막대기로, 나(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걸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들고 나가서 합하여 하나 되게 할 것을 생각해보고,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어봅니다.

| 협력 내용 | 우리(공동체, 학교, 직장, 교회) | 도시, 국가 |
|-----------------|---------------------|--------|
| 한반도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 | |
| 한반도 숲(생태계) | | |
| 한반도 교류 거점 공간 | | |
| | | |

요즘 대다수가 행복하지도 평화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사회에서 수동적 소비자로 살거나, 그 소비를 위해 창조의 기쁨을 박탈당한 채 살아갑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런 사회와 이를 지탱하는 사회적 폭력의 구조에 의문을 갖고 저항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제와 나눔의 삶,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삶,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삶, 흙과 농촌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자연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먼저 깨달은 이들이 평화로운 사회를 향해 허위의 풍요로움을 버리고 자연과 공생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며 끈질기게 살아낸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어두운 것만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날의 평화를 위해, 모든 생명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을 연습해봅시다. 오늘 단 하루만큼이라도 자연과 인간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맞춰 자신이 '하지 않을 것(Don't)과 할 것(Do), 그리고 나눌 것(Share)'을 약속해 봅시다.

- Don't : 나는 자연과 인간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을 안 한다.
- Do : 나는 자연과의 인간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을 한다.
- Share : 나는 자연과의 인간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을 나눈다.

추가미션> DMZ, 접경지역 걷기기도

공과 후 가능한 대로 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걷기 기도를 드립니다. DMZ 접경지역을 찾아가 걸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평소 다니던 길이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책하기 좋은 숲(물)길이어도 좋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닿아 있는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 사이,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바람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를 떠올리며, 그 속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봅니다.

걸을 때는 홀로 걷더라도 함께 걷는다는 마음으로,

- 걷기 전에 다음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엡 2:14)
- 걸을 때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걸음에 '주님', 또 한걸음에 '평화'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걸습니다.
- 그리고 다음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 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갈등하고 있을지라도 서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늘과 땅

을 만드신 주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돌보아 주옵소서.”